

대학 글쓰기 학술 에세이

202111748 정유준

세상에는 다양한 철학적 관점과 다양한 이상이 존재한다. 사회주의, 박리주의, 실존주의 등 많은 사상과 관점으로 존재한다. 나는 이 많은 지식중에 공리주의에 대해서 다룰 것 이다.

공리주의가 무엇이나, 공리주의란 '공리성'을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하는 사상이다.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이 그 행위가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늘리는 데 얼마나 기여하는가 하는 유용성과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넓은 의미에서 공리주의는 효용·행복 등의 쾌락에 최대의 가치를 두는 철학·사상적 경향을 통칭한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공리주의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내가 공리주의라는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은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생각을 아무런 과정 없이 생각한 것은 아니다. 평소 사회나 학업 생활에 있어서 어떤 주장에 다양한 의견이나 아이디어가 생성되곤 한다. 많은 의견을 하나로 종합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데 사람마다 모두 다른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 있어서 단합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기도 하다. 심지어 가벼운 선택을 할 때에도 의견이 종합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다. 우린 이때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방식으로 선정하곤 한다. 다수결의 원칙이란, 집단의 의사를 다수 의견에 따라 결정하는 원칙이다. 우리가 얘기하는 공리주의 또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으로, 다수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관점이기에 나의 관점과 일치하는 '공리주의'를 주제로 선정하였다.

공리주의는 옳은 생각인가? 즉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한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다수의 행복은 소수의 행복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고,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하여 말하고 싶었다. 많은 관점 중 다수가 한가지의 의견에 설득이 된다는 것은 그에 걸맞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양한 관점을 가진 여러 사람이 한가지의 의견에 집중한다는 것은 그 의견이 가져다주는 이익이나, 이점이 많다고 느껴 선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다수의 의견을 무시한 채 소수의 의견을 수용하였을 때 물론 이득이 되는 점이 있다고 하지만 만약 소수의 의견을 수용하여 일이 잘못되거나 좋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졌을 시 다수의 불만을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의문점이 제기된다. 이에 답변으로 다수의 불만을 해결할 수는 있지만, 만족스럽게 해결하지 못하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반대로 다수의 의견을 수용하였을 때 잘못되었다면 다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소수의 불만은 해결해주면 된다. 말 그대로 인원 중 적은 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다수보다는 불만 사항을 해결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할 수 있으므로 만족스럽게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공리주의를 판단할 때는 과정에 집중하는 것보다 결과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리주의는 행위의 동기보다 이익이나 행복과 같은 결과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공리주의의 주요 사상가이자 공리주의자인 벤담과 밀 또한 이렇게 말하였다. '행위를 평가할 때는 행위의 동기보다 결과를 중시해야 한다.'라며 행위의 동기보다는 이익과 결과를 강조해야 한다

고 주장한다. 하지만 과정에 대해서도 너무 안일해서는 안 된다. 공리주의의 행위에 있어서 다수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신분이나 권력이 높은 사람의 의견만을 수용하여 그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만 이익이 되는 등 공리주의 사상에 어긋나는 오점을 저지를 수가 있으므로 과정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을 지키는 선에서 과정보다 결론적으로 어떠한 이득을 얻게 되었는지 평등한 선택이었는지 등을 생각하면서 행위의 결과에 대해 집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다음 사례로 공리주의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한다. 나는 '네이비실 10팀의 레드 윙 작전' 아프가니스탄 최악의 참사에 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한다. 2002년의 아나콘다 작전 이후 대규모 토벌 작전이 없던 시절,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전력의 현저히 줄어든 사이 탈레반은 다시 세력을 늘려갔다.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의 접경지역에 있는 약 1000명 이상의 탈레반 병력의 공격으로 다국적군 약 22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군은 특수부대 전진기지를 설치하고 소탕 작전을 시행했다. 소탕 작전을 시행 하던 도중 문제는 얼마 지난지 않아서 발생하였다. 나무를 구하기 위해 등산하였던 양치기들에게 미군 정찰조가 발각당한 것이다. 성인 남성 2명과 어린이 1명, 이들은 아무 생각없이 등산을 하였다가 발각한 것이다. 대원들은 이들을 체포하였고 여기서 공리주의적 문제가 발생한다. 미군의 교전 수칙으로는 '비무장 민간인은 사살할 수 없다.'하고 되어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대게릴라 작전에서는 비무장 민간인이 무장한 게릴라가 되어 돌아온다는 점이 문제였다. 또한, 미군 특수부대는 제1차 걸프전에서 유사한 딜레마 때문에 작전을 실패한 경우가 많아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이들을 사살하게 된다면 작전은 아무런 위협 없이 완수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았고, 이들을 풀어주게 되면 작전이 들통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어서 대원들은 고민에 빠지게 된 것이다. 결국, 대원들은 회의하였고, 풀어주자는 의견 2명과 사살하자는 의견이 1명이었다. 지휘관인 머피 대위는 바로 이들을 풀어주게 되었다. 다수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었다. 결국은 이들이 석방된 지 1시간이 지난 후 탈레반의 전투원들이 나타나 대원들은 순국하고 말았다. 이 경우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얘기하자면 지휘관인 머피 대위는 다수의 의견을 수용했고 양치기 인들을 풀어주었다. 하지만 대원들이 순국하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공리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 판단을 비판하리라 생각한다. '만약 소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들을 사살하였다면 대원들이 순국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 아니냐'는 의견으로 말이다. 하지만 반대로 물어보고 싶다. 이들을 사살하는 것은 작전이 확실히 성공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은 아니며 단지 확률을 높이는 것뿐이 아닌가?, 그리고 만약 민간인을 사살하였다면 교전 수칙은 어떻게 할 것인가, 민간인을 아무 의미 없이 죽였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대원들의 미래는 어떻게 보장해줄 것인가? 라고 비판하는 내용에 반론을 내세우고 싶다. 결론적으로 작전은 실패했고 대원들을 죽음으로 내세운 결정이긴 하였지만, 대원들이 살아있다고 가정할 때 대원들이 민간인을 죽이지 않은 것에 후회할까? 라는 생각에 필자인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옳은 다수의 결정을 수용하였고, 결과는 누구든지 예측 불가하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앞서 이야기했던 내용처럼 필자인 나는 공리주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다양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므로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반론은 반드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반론에 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한다.

첫 번째, 공리주의에 따라 소수의 희생으로 다수의 행복을 추구한다면 소수의 희생은 필연적이고 정의롭고 옳다고 한다. 그렇다면 소수의 행복해질 권리는 없다고 생각할까? 답은 '아니다'이다. 물론 소수의 행복해질 권리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소수의 의견을 수용하여 발생한 문제나 경험들을 보다 보면 다소 극단적이었던 사례가 많다. 그렇기에 소수의 행복을 위해 판단하고 나서 생기는 위험성에 대한 많은 불만과 의견이, 다수의 의견을 들었을 때보다 심각한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수의 결정을 들어 판단하는 것이 옳거나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공리주의의 정의를 내릴 때 이기적 쾌락주의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소수의 의견, 행복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다수를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여 '이기적'이라는 수식언이 붙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재반론할 것인가? 우선 쾌락이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한다. 쾌락이라는 것은 모두 나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공리주의란 다수의 '행복'을 위해 소수를 희생하자는 것, 즉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기주의적 쾌락주의자로 살아가자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또 이는 공리주의를 해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행복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올 수 있어서 이는 공리주의의 본질을 잘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리주의에 대해 많은 의견들이 있다. 하지만 이는 사람 개인마다의 상황이나 배경에 따라 관점이 다르므로 어쩔 수 없는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고 생각한다. 이렇다 할 정확한 정답은 없지만, 필자인 나는 공리주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하는 것, 다수의 행복을 위해 소수를 희생하는 것은 필연적이며 옳다고 생각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중 세계의 특수작전 1 '실 10팀의 레드 워밍 작전' 2021년 11월 27일 접속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837834&cid=60356&categoryId=60356>

네이버 지식백과 중 학생 백과 '다수결의 원칙' 2021년 11월 27일 접속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41348&cid=47335&categoryId=47335>

송파 신감독 '공리주의(벤담, 밀, 행위공리주의, 규칙공리주의) 2021년 11월 27일 접속
<https://blog.naver.com/alchan16/221967795200>